투데이 칼럼

북한의 장단기 경제개혁 문제

정 복 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갈수록 북한의 경제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요지부동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은 핵 개발에 목을 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마당이다.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개혁 개방 없이는 결코 미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장단기 경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북한에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 경제 개혁 조치들이 절실하다. 점진적인 경제 개발을 위한 단기 조치로는 먼저 장마당을 확대하는 일이다.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

북한 내 급증하는 장마당을 합법적인 시장제도로 인정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마당의 공식적 합법화는 상인들은 물론 북한 정권에 재정적 이득이된다.

상업 활동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당국은 세수를 얻게 된다. 상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상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최근 장마당 운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다.

장마당에서 판매 가능한 물품을 농축산품으로 제한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개혁을 시도한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법은 북한에도 적합한 모델이다.

북한은 갑작스런 경제 개혁과 시장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 역시 보다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먼저 5년 내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경제협력 경험이 있는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외국 투자자, 신흥 경제국, 선진국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 투자 환경을 차례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성공단과 같이 기존에 있는 북한 경제특구 내 기업의 자율성 강화, 투자 계약에 대한 법적 제도 개혁 등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특구 운영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개혁 초기 중국, 베트남, 폴란드는 기업의 개인 소유를 합법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기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먼저 가입해 개발 투자와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한다.

물론 IMF 가입을 위해 향후 투자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경제적 투명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가입을 승인받아야 한다.

향후 6~10년 사이 취할 수 있는 중기적 조치도 필요하다. 북한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해 이들로부터 필요한 자본과 개발 관련 기술을 획득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관리와 관련해 북한의 투자 위험도 평가와 양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세계금융기구 가입은 필수적이다.

북한은 국제금융기관 가입을 통해 지원을 돕는 이들 기관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제 개혁에 매우 진지하며,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보호 장치가 있는지 등을 알기 전까지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북한과 경제협력이 없었던 인도, 태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특구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북한의 숙련 노동자들에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은 이러한 단계를 차례로 밟아 10년 후 취할 수 있는 장기적 조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 물가상승 및 금융 부문을 규제하는 경제제도 개혁이다.

북한은 단기, 중기 투자 개혁을 통해 외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 설

재정 지원 탈락된 도내 대학

전국 52개 대학이 '대학교 살생부'라 불리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향후 3년간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수도권 4년제 대학 11개교가 무더기로 포함되면서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해당 대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정된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평균 48억 3000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 5000만 원씩을 받는다.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탈락한 52개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는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 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 및 발전에 투자 가능한 자금은 확보하지 못한다.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중에서 선정됐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18개교는 참여가 제한됐다. 그 결과 233개교가 선정됐으며, 52개교는 탈락했다.

전북 도내 3개 대학도 교육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도내에서는 국립대 1개를 포함해 전문대 2곳 등 3곳이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간 40억 안팎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며, 입학생 모집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학의 위기가 몰고 온 구조 조정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산악 사진가 이윤승 '덕유산' 사진전

산악 사진가 이윤승 사진전 '덕유산'이 최근 전북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관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립공원 덕유산을 대상으로 담은 흑백과 컬러 사진 작품 20여점을 선보였다.

그는 기존 인화지 등에 프린터했던 방식을 탈피해 전주 전통 한지에 사진을 담았다.

한지에 인쇄된 산 능선과 운해는 수묵화를 연상케 하고 색다른 사진의 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지의 주재료인 닥나무는 고유의 결을 통해 이미지에 독특한 질감과 깊이 감을 더한다. 작가는 덕유산의 신록, 운해, 태양 등 사계절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묘사했다.

그는 30여 년 전부터 백두대간을 누비며 정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진에 담기 위해 산악 사진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9년~2017년까지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월악산, 주왕산, 속리산 등 30여 차례 산상 전시회 그룹전을 가졌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전시회 등 각종 국제대회 초청 산악 사진 그룹 전시회도 열었다.

이윤승 작가는 지난 1982년부터 35년여 동안 통신사 일선 취재 기자로 활약했던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사)한국산악사진가협회 이사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한국산악사진가협회는 산악 사진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정통 사진가 단체다. 현재 전국에서 140여명의 전문 산악 사진작가와 500여명의 사이버 회원이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산악사진가협회 회원들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힘찬 발걸음으로 전국을 누비고 있다. 회원들은 앞으로도 단순한 사진작가로서가 아닌 한국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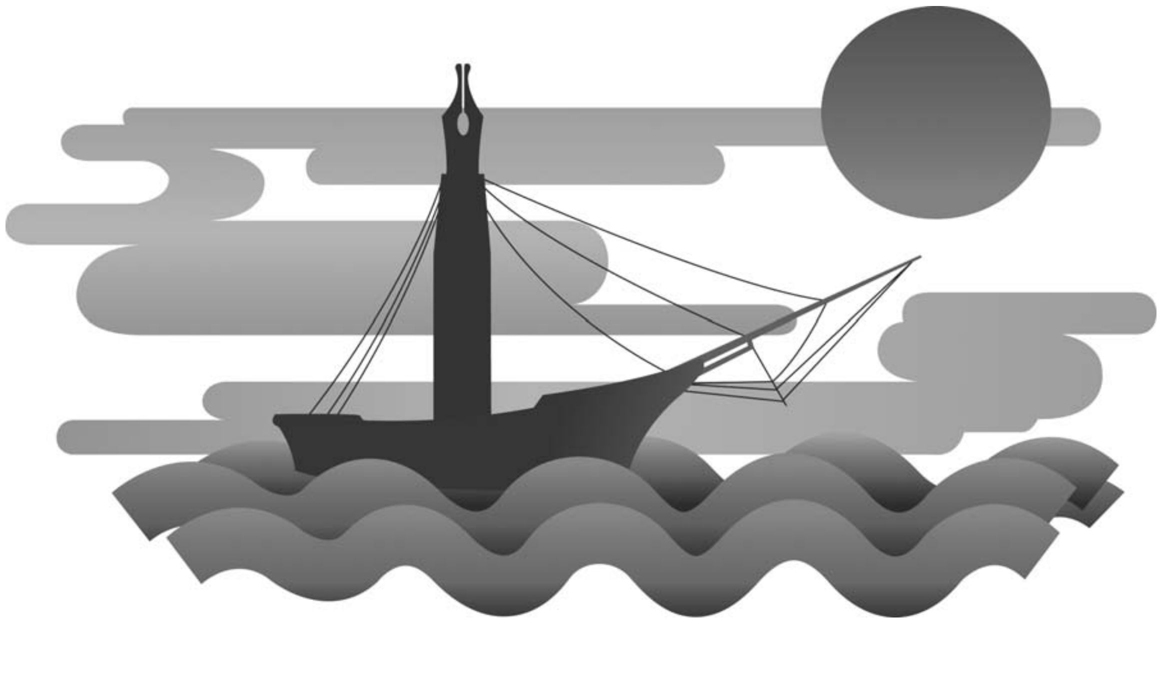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연기 자욱한 미국 캘리포니아 '칼도르 산불' 현장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의 트윈 브리지스에서 '칼도르 산불'로 파괴된 건물 주변으로 연기가 가득 차 있다.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과 짙은 연기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민 약 6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통' 뒤집어 쓴 영국 기후반대 시위대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금융가의 영국은행 인근에서 연료통 등을 머리에 쓴 '멸종반란'(Extinction Rebellion) 시위대가 기후변화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